녹색혁명 '천국의 밥상'을 만들다.

– 경제위기속 숙명적 선택 농약 · 화학비료 대신 '땅속 농부' 지렁이 활용 유기농 최강국 우뚝 –
= 세계적 유기농 국가 쿠바기행 =

천 지 아 기자
대전일보

전 세계 환경운동가와 생태학자들이 쿠바로 몰려들고 있다. 세계적 유기농 국가 쿠바의 농업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이다. 1990년대 초, 미국의 봉쇄정책과 구소련의 붕괴로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했던 쿠바, 하지만 쿠바인들은 좌절하지 않고 직접 먹을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농기구를 들었다. 너도나도 밭을 일구고, 친환경 농법에 사활을 걸었다. 그렇게 10여년 뒤, 나락에 빠졌던 쿠바에 푸른 농업혁명이 일어났다. '유기농 강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쿠바의 농업을 소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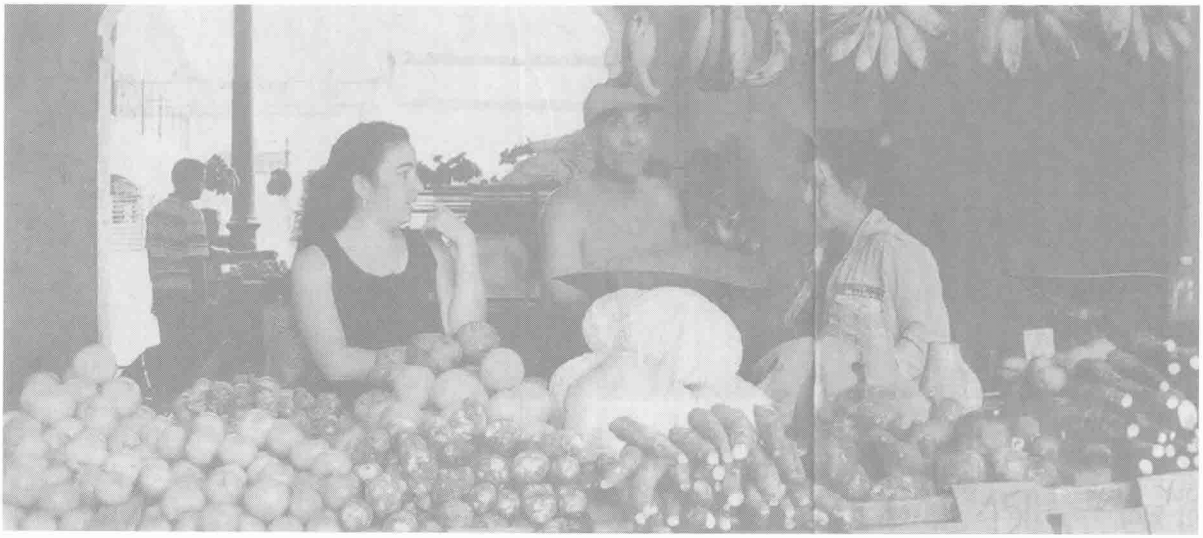
맛 좋은 유기농산물 가득한 곳

쿠바로 떠나기 전 부에나비스타소셜클럽, 살사, 시가, 카리브 해변 등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쿠바 농업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언젠가 "쿠바는 세계가 주목하는 친환경 '농업국'이란 얘기를 들은 적은 있었지만 그 뿐이었다.

솔직히 아바나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보았던 쿠바의 농산물들도 다소 실망스러웠다.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채소와 과일은 한국에서 보아왔던 것과는 상당히 달랐다. 판매대에는 표면이 거칠고 군데군데 상처가 많은 과일과 시들시들하고 거뭇거뭇 반점이 있는 야채가 놓여 있었다. 한국의 빛깔 좋고 먹음직스러운 과일, 싱싱하고 탱탱한 채소들에 비해 품질이 한참이나 떨어져 보였다. 처음엔 '가난한 나라여서 농업기술이 뒤떨어지는 구나'란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단은 나의 무지에서 비롯된 경솔함이었음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쿠바는 농산물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단다. 유기농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겉보기는 별로여도 맛과 품질이 매우 우수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실제로 먹어본 농산물의 맛은 뛰어났다. 시들시들한 상추와 양배추는 어찌나 아삭아삭하고 맛이 있는지 쌈을 싸먹는 것만으로도 밥 한공기가 금세 사라졌다. 과일은 또 어떤가. 덜 익은 듯 푸르스름하고 까칠해 보이는 오렌지와 아담한 파인애플도 껍질을 벗기면 풍부한 과즙과 당도 높은 과일 속살

▲ '흙속의 농부' 지렁이가 가득한 땅속



▲ 쿠바에서 과일은 지정된 판매대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과일이 당도가 높아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을 드러낸다. 먹고 나면 입 안 가득 풍부한 과일 향이 퍼진다. 생애 최고의 과일 맛을 쿠바에서 만나게 될 줄은 예상치 못했다. 가격도 오렌지 한 개에 50원, 파인애플 600원, 망고 800원 가량(관광객도 농산물은 현지인이 지불하는 가격으로 구입가능)으로 저렴하니 '과일천국'이 따로 없었다.

하지만 쿠바에서 과일을 사는 데는 약간의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호텔 매점이나 동네 마트 등에서는 과일을 판매하지 않고 정해진 농산물시장과 판매대에서 그것도 영업시간에만 거래되기 때문이다.

경제위기에 쫓겨 시작한 친환경 농법

그런데 쿠바는 어떻게 세계적인 유기농 국가가 되었을까? 이야기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러간다. 1990년대 초, 쿠바는 미국의 봉쇄정책 강화와 구소련의 붕괴로 극심한 경제위기를 맞는다. 특히 식량 대부분을 '사회주의 형제국'에 의지한 채 사탕수수, 커피, 담배 등 수출용 작물재배에 집중해 온 터라 당장 먹고 사는게 급했다.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국민들의 체중이 10kg이나 줄어나갔다.

이에 카스트로 정권은 1991년 9월 '평화 시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농업분야의 대개혁을 추진한다. 외국산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존해 온 기존 농법이 불가능했기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유기농이다. 화학비료, 농약이 없으니 정부와 과학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퇴비와 유기비료 개발에 총력을 다 했다. 지렁이, 곰팡이, 박테리아 등도 유기농업에 동원됐다. 과학자들은 전통농업기술과 자재를 재발굴, 현대 과학기술과 접목시킨 뒤 친환경 유기농법을 현장에 적용시켰다. 특히, '쿠바 유기농의 숨은 주역은 지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렁이는 쿠바 농업개혁에 큰 역할을 했다. 지렁이 퇴비인 분변토 공급을 통해 흙이 되살아나면서 생산력도 급증했다. 혐오 동물인 지렁이가 '땅속의 농부'로 거듭난 것이다.

이 같은 정부와 연구기관의 노력에 농민뿐 아니라 도시인들도 팔을 걷어붙였다. 혁명 이후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나와 전문직 종사자로 탈바꿈한 탓에 쿠바 인구의 80%는 도시에 살고 있었다. 경제위기에 봉착한 도시민들은 소수 농민의 생산력에만 의존할 수 없었다. 살기위해 농업을 도시로 가져와

▲ 유기농채소

야 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쿠바 유기농의 핵심이 된 '도시농업', 도시에 사는 쿠바인들은 발코니와 집 텃밭, 인근 공터와 쓰레기 매립장 등 도시의 비어 있는 땅에 곡류와 채소를 심었다. 콩과 양상추, 토마토, 옥수수 등을 키워 먹을거리를 해결했다. 그것도 화학비료와 농약 없이 퇴비와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100% 유기농법으로 말이다.

위기를 기회로… 녹색혁명 성공

친환경농업의 결실은 단 10년도 되지 않아 나타났다. 죽어 던 땅이 되살아났고 농산물 생산량도 크게 늘어났다. 생태보전형 농업은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낮다는 우려를 깨고, 쿠바의 식량자급률은 유기농업 운동 시작 이전인 1990년의 43%보다 훨씬 높은 95%(2002)를 달성했다.

도시농업도 활발해져 수도 아바나는 농지가 도시의 40%를 차지하는 '생태도시'로 재탄생 됐다. 생태적 유기농법의 메카이자 환경과 공생하는 도시 모델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현재 아바나에는 8000개가 넘는 도시농장과 텃밭이 있으며, 약 3만 명의 시민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쿠바의 녹색혁명의 성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시기 똑같은 경제난을 겪은 북한에서는 지난 10년간 200여만 명의 인구가 사라졌지만 쿠바에는 더 이상 굶는 이가 생기지 않았다. 오히려 육류 위주의 식생활 패턴이 유기농산물 중심으로 바뀌어 국민의 건강지수는 높아지고 질병발생률도 30%로 낮아졌다.

경제위로 시작된 유기농 운동이 쿠바에 농업혁명이라는 큰 선물을 가져다준 것이다. 결국, 시련은 도약의 기회가 됐고 쿠바는 위기에서 희망을 건져냈다.

이쯤해서 우리나라의 농업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먹을거리의 안전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농촌은 고령화되고 농업 인력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 농산물의 국가 경쟁력은 뒤떨어지는데 국제사회로부터 개방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농민들은 이에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국민들도 정부의 농업정책에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한마디로 농업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최악의 위기를 딛고 생태 국가의 모델을 제시한 쿠바의 녹색혁명에서 21세기 한국농업의 가능성과 생존법을 찾아야 한다. 작은 카리브해 섬나라 쿠바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대전일보 2008년 8월 6일에서 발췌〉